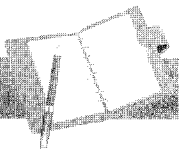


6월의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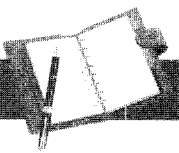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일반 사양관리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멀지않은 미래에 아열대 기후로 바뀔 전망이다.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점점 여름이 빨라지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하여 축사환기시설 및 환풍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올해는 장마가 길췌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장마를 대비하여 우사 및 운동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비가 자주내리는 시기이므로 야적된 분뇨가 있다면 장마 도래 전에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빗물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덮어 비로 인한 축산폐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운동장이나 축사바닥을 청결히 관리하여 우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목장을 실현한다.



양질 및 위생관리

표리와 모기 등 해충의 발생은 전염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주변을 깨끗이 하고 고인 물이 없도록 한다. 사료조를 늘 청결하게 관리하여 건물섭취량이 부족되지 않도록 하며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우사 소독을 월 1회 정도 실시한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수량이 많아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은 낙농가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국내 우유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로부터 인

식받기 위해서는 체세포수 및 세균수 그리고 항생물질 관리철저로 1등급 우유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하복부나 유방주위의 긴 털은 수시로 이발기거나 볼로 제거해 주고 꼬리, 허벅지, 하복부, 유방주위의 오물도 제거해 준다. 그리고 착유시 착유자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꼬리도 깨끗하게 가위 등으로 손질한다. 정기적인 착유기 점검과 CMT검사를 통한 준임상형 유방염 감염우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일도 양질의 원유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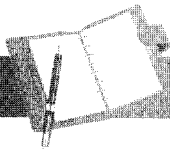


사양관리

더위에 약한 착유우의 경우 고온스트레스로 인하여 건물섭취량, 산유능력 및 번식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더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료비 절약을 위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고 섬유질이 높은 것은 분쇄 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고 그에 따른 배합비를 조절하여 가격은 낮추고 젖소의 능력에는 영향을 좋은 쪽으로 미치도록 한다.

MUN(우유중에 함유된 요소태 질소의 농도)은 유단백질 농도와 함께 착유우에 대한 단백질과 에너지 공급상태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각 목장에서는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여 정기적인 MUN 정보를 받아봄으로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알아낼 수 있으며 개체별 또는 전체 유군별 MUN 변화양상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사양관리 목표를 세워 건강한 축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정 MUN 수준은 우유 1데시리터당 12~18mg이며 이 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사료중 에너지와 단백질 균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료배합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땀 등으로 배출되는 광물질의 양이 증가하므로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또한 번식성적 향상을 위하여 수정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정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1일 2시간 정도 발정관찰을 하도록 한다. 육안을 이용한 관찰이 가장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이고 필요시 발정관찰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초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강수량 및 온도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고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가축의 건강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은 물론 조사로 생산과 관련하여 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건조를 만들고자 할 경우 건조중에 비를 맞추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옥수수 등 초지 및 사료작물에 발생하는 멸강충 및 조명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해야 할 시기이다. ☹

<멸강충 및 조명나방 방제방법>

| 구분 | 멸강충 | 조명나방 |
|---------|--|---|
| 발생 및 증상 | 6월 중순경 2차례에 걸쳐 많이 발생하며, 입을 주로 갉아먹는데 조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초지 및 옥수수대만 남기고 먹어치움 | 6월 중순경부터 발생하여 옥수수 줄기 속에 기생하며 옥수수대를 부러뜨리고 옥수수 수량을 감소시킴 |
| 방제 |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 디프테렉스 1,000배액을 1,200ℓ 살포 | 경운시 포장에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갈아엎고 적기파종으로 저항성을 갖도록 하며 살충제로는 후라단 사리약을 ha당 30~40kg을 살포하거나 세빈 600배액을 ha당 1,440ℓ 정도 살포한다. |